



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

수 신 전체 회원교 교수(협의)회 및 평의(원)회 회(의)장

참 조

제 목 「교육부의 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개방」에 대한 교수회 의견 제출

1. 관련

가. 「국립학교 설치령」 (대통령령 제33826호, 2023.11.16. 시행)

나. 교육부 운영지원과-28943(2023.11.20.0 「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가이드라인 안내」

2.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(이하 국교련)는 회원교들의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의 ‘국립대학 사무국장 임용 개방’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- 아 래 -

- 교육부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일부개정하여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를 교수 및 민간으로 확대 개방하는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다. 이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며 국립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이고 이를 통해 대학 주도의 교육개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
-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대학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.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:
 - **과거 이력에 대한 불신:** 이주호 장관은 MB 정권 시절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를 폐지한 바 있어, 그의 대학 자율성 및 혁신에 대한 약속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.
 - **총장 권력의 집중 우려:** 총장에게 사무국장 임명권이 주어질 경우, 총장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대학 운영의 견제 장치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.
 - **임명된 인사의 자질 문제:** 총장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임명되거나, 정치권과 연계된 인사가 사무국장으로 임명될 경우, 대학의 미래와 행정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.
 - **교육부의 지속적인 간섭 가능성:** 인사혁신처의 검증 과정을 생략하고 교육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침은 교육부의 지속적인 인사권 간섭 의도를 시사한다.

-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, 대학의 자율로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제도는 대학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. 이 제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i) 공모제도의 도입, ii) 사무국장 자격 요건의 명확화, iii)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위원회 구성 등 iv)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과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. 이와 같은 절차는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을 존중하고, 대학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. 끝.

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장



전문위원 송한희

사무총장

상임회장 유진상

시행 국교련 26-071(2023.11.30.)

주소 (5114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본관 1212호 교수회

전화 055-213-4705

E-mail: newknupa@naver.com/ 공개